

방학기간중 그대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색 아르바이트

자기용돈은 자기 스스로

방학을 맞이할 즈음엔 누구나 나름대로 알찬 계획을 세워보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도 돈이 없으면 무용지물. 부모님께 타서 쓰는 용돈엔 한계가 있고... 여가친구와 데이트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어느새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지도 모른다. 또 다시 재미없는 방학이 되기 싫다! 그렇다면 이번 방학엔 자신의 손으로 용돈을 마련해보자. 몇가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보면

· 수상안전요원-무더운 여름이지만 저쪽, 시원한 바다가 나를 부른다. 그런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럴 때 돈도 벌고 여행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수상안전요원이다. 여름이 되면 각종 캠프가 바다나 계곡에서 열린다. 급류타기나 윈드서핑 같은 경우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안전요원을 필요로 한다. 이런 캠프에 동행하여 안전요원을 보조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 물론 숙식은 제공되며 보수는 일당 3~5만원 정도된다. 자격은 신체건강하고 순발력이 있는 남자에 한한다. 이벤트 회사에 등록한 후 시간이 맞는 캠프에 동행하면 된다. 문의는 이벤트 기획캠프(739-7317)로 하면 된다.

· 레크레이션 지도자-“끼가 있다. 유머머가 있다. 분위기를 확실하게 띄울 수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 ‘레크레이션 지도자’를 한번 해보자. 각종 야유회나 체육대회 등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낯치는 끼를 마음껏 발산하여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는 5~10만원 정도이며 그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739-7317)로 하면 된다.

· 나래이터 모델 보조-무연선터KOE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 나래이터 모델을 보조하여 자동차 닦기, 전단 배포, 동물탈을 쓰고 있기 등 안전요원이다. 여름이 되면 각종 캠프가 바다나 계곡에서 열린다. 급류타기나 윈드서핑 같은 경우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안전요원을 필요로 한다. 이런 캠프에 동행하여 안전요원을 보조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 물론 숙식은 제공되며 보수는 일당 3~5만원 정도된다. 자격은 신체건강하고 순발력이 있는 남자에 한한다. 이벤트 회사에 등록한 후 시간이 맞는 캠프에 동행하면 된다. 문의는 이벤트 기획캠프(739-7317)로 하면 된다.

· 문화잡지 월간 See-학생 리포터, 아르바이트생 및 아이디어 제공자를 모집한다. 대중음악을 사랑하고 대중음악 및 대중문화계의 판도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이다. 문의 전화는 (761-6224)이고 담당은 이애경 기자이다.

· (주)현성-방학간 아르바이트

이트로 4년간 학비와 재학중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멘트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 남녀 불문하고 선착순 1백명을 모집하며, 모집분야는 판촉홍보 및 영업부서와 현장 이벤트 사업부서이다. 6월10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문의는(3476-5454)로 하면 된다.

· 아파트 외곽 및 실내소독-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해야 하며 일당은 3만원이다. (중식 및 간식 별도 제공) 문의는 (주)일산주백관리(922-1244, 922-1235)로 하면 된다.

· 놀이공원 아르바이트-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는

(최웅섭 기자)



유스호스텔 따라 떠나는 전국일주

다양한 사람 만날 기회

집을 떠나 먼 곳에서 몇일을 살자면 당연히 쉴 곳,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잘 곳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여행에서 가장 선호하는 숙박의 형태가 바로 '민박'이다. 일반 가정집을 숙박소로 일부 개조해 저렴한 가격에 여행객을 받기 때문에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민박집의 경우 그 공간이 작기 때문에 자칫 일행끼리의 시간만을 갖게 되기 쉽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여행. 그 기회를 '유스호스텔'이 제공한다.

국외여행을 경험해 본 학생이라면 한번쯤 유스호스텔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여행 중 유스호스텔을 찾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유스호스텔의 수가 많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

들이 유스호스텔의 국내 존재에 대해 생소하게 여기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올림픽 공원에 위치한 서울 올림픽 파크텔을 비롯한 약 36개의 유스호스텔이 각 도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 유스호스텔의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6천원 정도이며 유스호스텔 회원에 가입할 경우 약 1천원 정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회원에 가입하는 방법은 한국유스호스텔 연맹(02-725-3031)에 주민등록증과 사진 2매를 제출하면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회비는 25세부터 2만원, 24세 이하의 1만2천원이다.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경우 각종 특이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광주 광산구 유스호스텔(062-943-4378)은 헬스장을 구비해 놓고 있으며 강원도 춘천 유스호스텔(0372-43-6488)에는 볼링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숙소 내에서도 오락을 즐길 수가 있다.

또한 대부분 유스호스텔은 관광명소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 유스호스텔을 따라 전국여행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명소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강남이 기자>

떠나고 싶은 테마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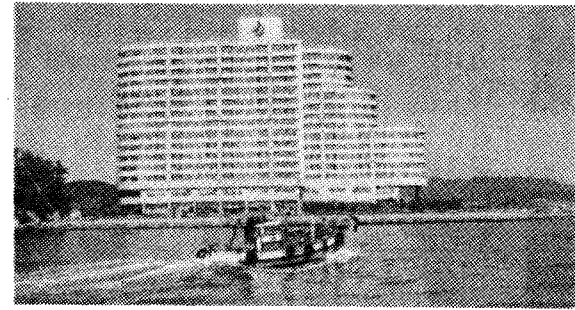
철저한 여행준비 필요

벌써 6월초이다. 새학기가 시작할지 멀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몇주후엔 방학이다. 새내기들은 대학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방학이 설레임으로 다가올 것이고 '헌내기' (?) 들은 방학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계획할 것이다.

대부분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하고 싶은 일종의 하나기 여행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은 여행을 통해 자기견문을 넓히고 그곳의 문화를 체험하고자 한다. 그러나 무작정 아무 계획없이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여행을 하는 것이 멋진 방학, 추억있는 방학을 보내는 방법이다. 국내 여행지 중에는 가방 하나를 둘러 메고 다닐 곳이 너무 많다. 테마적으로 다닐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 민속축제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고 싶다면 서울-한국민속촌-독립기념관-청주-속리산 국립공원(법주사)-대덕연구단지(화폐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계룡산 국립공원-서울의 3박4일 코스가 적당하다. 우리나라 역사문화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라면 서울-수원성-계양리 3.1운동순국유적-독립기념관-온양온천-현충사-한국민속촌-서울의 간단한 1박2일 코스로 우리 역사의 내면적인 것을 충분히 재미있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매일 바빠서 도저히 여행할 시간이 없다면 당일코스로 조계사-강화 전등사-보문사-강화역사관-서울의 사찰, 사지 구경도 짧은 하루지만 많은 도움이 된다. 국립중앙박



물관(경복궁)-삼청출판 박물관-청주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해인사 팔만대장경 경판고-대구-서울의 2박3일 코스는 우리 인쇄문화에 대해 심도있게 알려준다.

· 도대체 우리 국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은 쉬운 당일코스로 서울놀이마당-국립국악원, 국립박물관-한국의 집을 갔다오면 '서편제'의 의미정도는 파악이 될 것이다. 산애호가나 산의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서울-설악산 국립공원-간성 왕국민속마을-통일전망대-속초-서울의 3박4일 코스로 좋다.

· 골프는 부유계층만 하는 스포츠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박2일 코스로 서울-덕평골프장-세라타워키벌쇼-63빌딩-롯데월드를 가보라. 아마 박세리가 하는 운동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강태공 같이 낚시에 삶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서울-합천 해인사-지제도 해금강-충무-여수-서울의 3박4일을 코스로 그 묘미를 충분히 느낄 것이다. 물론 한손에 낚시대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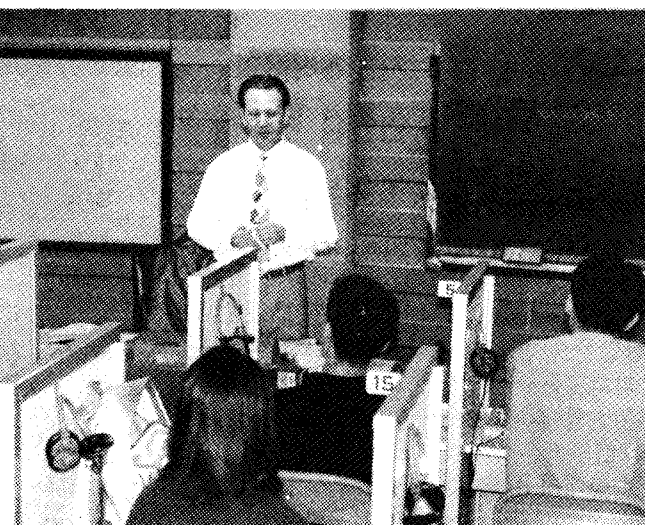
· 연인과의 멋진 십마테이를 가고 싶은 사람들. 인생에 있어 행복한 순간들을 맞보고 싶다면 당일 연인의 손을 잡고 당일 코스로 서울-파천경마장-서울랜드(야간개장)를 갔다오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 더 많은 목적여행들이 있지만 방학기간 중에 위의 여행들만 해도 충분히 방학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고 조금 더 자기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듯 싶다. 방학이라고 집에서만 빈둥거리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단 몇일이라도 여행을 갔다와 우리문화에 대해 안다면 방학의 반쯤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 한다. (김동혁 기자)

어학원을 찾아서

여러가지 어학실력 키우자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수산스러울 때이다. 그 중에서도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자 하는 이들은 벌써부터 어학공부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어학원을 알아보려고 하면 막막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우리학교와 주변 어학원을 소개하고자 한다.



▲어학실력을 풍부하게 쌓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영어회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한국인 강사로 초급자에게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회화는 외국인 강사가 강의해 정확한 영어 발음을 배울 수 있다.

· 한편 서강대, 한양대의 경우는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반년성 시험을 실시하는데 서강대의 경우 인터뷰는 10분, 문법은 30분 간 시행하고, 한양대는 집중영어 코스만 인터뷰를 실시한다.

· 또한 서강대는 타대와 다르게 모든 강사가 외국인이고 전 교과를 서강대 어학원 자체에서 준비한다. 한양대의 경우는 9시부터 19시까지 CD-ROM 타이틀 이용이 가능한 어학 자료실을 개방하여 원하는 학생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가까이 위치한 한국의국어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베트남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를 비롯한 24개의 다양한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과에 한해 분반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 학원증을 발급하는데 이를 사용할 시 전월 정액권 20% 할인 및 교내 도서관 이용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 그 밖에 학교 근처에 있는 S.D.A 삼육외국어학원은 수업시간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일본어 집회가, 8시에는 영어집회가 있다. 또한 성경 연구반이 있어 매일 정규 회화시간에 성경을 영어 또는 일본어로 공부할 수 있다.

· 방학을 이용해 많은 학생들은 평소 하고 싶어도 시간 여유가 없어 할 여두를 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계획할 것이다. 이번 방학 동안 평소 자신의 어학실력을 한탄하던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어학원을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강재은 기자)

색깔있는 대우광고 만들기③

세계경영, 다음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대우가족

참을 수 없는 크리에이티브를 위하여!

설명을 좀 더 해달라는 뜻인가?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는 침묵의 무게만큼 굳게 입을 다문 창작팀원들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허기를 느껴며 어미의 주둥이를 쳐다보는 어린 새끼는 눈빛에 욕망까지 다가선 '이런 생각없는 녀석들'이란 욕설이 입에서 누출되었다. 벌써 2시간째 거의 막혀버린 싱크대의 개수들처럼 느릿느릿 뱀도는 지리함으로 '세계경영=다음세대와의 약속'이라는 화두는 회의에 참석한 모두의 머리에 푹푹 앉고 또더러를 뚫고 있다.

"오늘은 됐다. 차리리 접자, 접어."라고 외침이 생각했던 김백호 팀장의 얼굴이 반쯤 일그러질 때, 단내 나도록 쾌다한 입으로 속을 태우던 기획팀 최정원 차장이 예기치 못한 일상을 내뿜는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신문 봤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3대 그룹의 재무현황 관련 기사'입니다. 거기 보니까 지난해 대우그룹이 경쟁사는 물론이고 3대 그룹 평균보다 월등한 차이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세 부문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출액 증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30%를 유지해 왔고 순이익율도 경쟁그룹보다 2배 이상이고 30대그룹 평균보다 무려 45배가 높아요. 반면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비율은 4대그룹 중 가장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대우가 세계경영을 한다니까 투자가 늘어 경영구조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질시섞인 의구심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선대 이제부터 전 세계에서 이룩한 실질적인 성과와 그로 인해 개선되는 내실경영의 모습을 조화시켜 세계경영을 부각시키면 어떨까요?"

"어! 그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얼마전 대학생 대상으로 조사된 기업 이미지 평가에서 대우그룹이 미래 성장가능성과 진취적인 세계화 두 개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지. 이전 바로 소비자들로부터 세계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대우가 신뢰와 믿음을 얻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

"그러면 이쯤부터 대우는 왜 이처럼 남달라 오래된 육대주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 고민을 해보지?"

"바로 그 부분이 '세계경영, 다음세대와의 약속입니다'와 연결되는 핵심이 아닐까? 내 생각으로는 세계경영의 우수한 성과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기 보다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우의 기업정신 또는 대우의 존재의미를 전파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물론 그 밑바에는 세계경영에 대한 대우의 자신감이 깔려있고... 맞아?"

광고전략이 화려한 창작팀 안병희 팀장이 정곡을 찌른다.

"바로 그거야! 더 설명할 필요도 없네!"

김백호 팀장은 손으로 탁자를 내려치며 환호를 질렀다. 아까의 결렬하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르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가 공감하고 그들과 대우라는 기업사이의 친근감을 좀더 강화하는 거지." 그리고 대우의 기업정신과 국민정서 사이에 공통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아들, 딸을 위해'로 요약되네. 그래서 '다음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컨셉트를 생각해?"

"확실한 거지?" 안병희는 기획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지만 다른 스텝을 위해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이어 창작팀을 이끄는 양기복 CD도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음세대와의 약속이라..." "잘만하면 꽤 멋진 캠페인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한번 해보자구. 이차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린이를 출연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이를테면, 해외에 나가 있는 대우인의 자녀들..."

"반대로 외국에 있는 대우인이 늘 함께 못해주는 딸에게 애절한 편지를 쓰는 것은 어때요?"

회의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디자이너 이용은 차장의 한마디를 시작으로 밤비위로 차오르는 광란처럼 아이디어가 튀어 다닌다. 이제 침묵은 회의실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침내 크리에이티브의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다. (다음 편에 계속...)

